



보도시점 2024.8.14.(수) 17:00 배포 2024.8.14.(수) 09:00

## 기재부·농식품부, 폭염 대응 여름배추 수급 및 추석 성수품 공급 관리에 만전

-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, 강릉 배추 생육현장 합동 방문
- 병해충 예방 약제 할인 지원, 재배면적 확대, 비축물량 직접 공급 등 총력

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4일(수)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\*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하여 8월 중하순 배추 수급 상황 및 추석 성수기(8.26~9.18) 성수품 공급 여건을 함께 점검하였다.

\* 고랭지 배추 재배 핵심산지 중 하나로 195ha(축구장 약 278개 면적)에서 연간 약 12,000톤의 배추를 8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공급

김 차관과 박 차관은 농협 관계자 및 재배농가와 함께 배추밭을 돌아보면서 여름배추 작황과 출하 계획을 청취하고 생육 상황을 살펴보았다. 김 차관은 올해 여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(△6.2%)하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생육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.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폭염에도 불구하고 무름병 등 병충해 피해가 크지 않고 8월말 출하되는 배추 생육상태도 양호하여, 태풍 등 향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배추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 박 차관은 계약재배 농가의 생육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병해충 예방 약제 할인공급(30% 이상 할인)을 추가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양 차관은 최근 배추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\*되어 소비자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. 물량 부족이 예상되는 8월 중·하순에는 비축물량을 일 최대 400톤까지 방출할 계획이며, 예비묘 200만주를 활용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이에 더하여

마트에 30% 할인된 가격으로 배추를 직접 공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 
전방위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.

\* 도매가격(원/포기): ('23.8월중순) 3,805 ('24.7월중순) 3,637 (8.12일) 5,622 <전년비 47.8% 전월비 54.6%>  
소매가격(원/포기): ('23.8월중순) 5,895 ('24.7월중순) 4,828 (8.12일) 5,990 <전년비 1.6% 전월비 24.1%>

김 차관은 “출하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영양분 공급과 선제적  
방제 등 생육관리에 만전”을 기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하면서 명절 성수기  
공급 확대를 위한 계약재배 농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였다.

아울러 국민들께서 풍성한 한가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을  
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며, 특히 배추의 경우 평시 대비 대폭 확대 공급하여  
국민들의 식탁물가 걱정을 덜어드릴 계획임을 강조하였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<br>물가구조팀     | 책임자 | 팀 장 | 박상우 (044-215-2931)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신승헌 (happyhoney@korea.kr) |
|       | 민생안정지원단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| 팀 장 | 강창기 (044-215-2861)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신채용 (shinchy@korea.kr)    |
|       |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<br>원예산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신우식 (044-201-2240)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| 배민식 (msb720@korea.kr)    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